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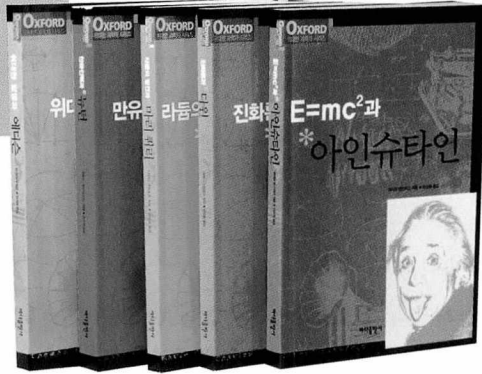
세상을 바꾼 과학자들의 삶과 혁명적인 발견

〈옥스퍼드 위대한 과학자〉 시리즈 1차분 5권 나와

바다출판사가 세상을 바꾼 과학자들의 삶과 그들의 위대한 발견을 통해 현대과학의 진화과정을 추적한 〈옥스퍼드 위대한 과학자〉 시리즈를 펴냈다. 이 시리즈는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발행한 〈Oxford Portraits in Science〉를 재구성한 것으로, 과학자들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뤄낸 과학적 업적을 다양한 자료들로 조명한다. 15세기의 자연과학자 코페르니쿠스부터 노벨물리학상과 노벨평화상에 빛나는 20세기 물리학자 폴링에 이르기까지 총 25명의 위대한 과학자들의 삶을 추적했으며, 시리즈 1차분으로 다섯권이 먼저 나왔다.

시리즈 첫권인 《E=mc²과 아인슈타인》(제레미 번스타인, 이상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식으로 불리는 'E=mc²'의 탄생 과정과 상대성이론에 기초한 아인슈타인의 우주론, 천재 물리학자의 외로웠지만 치열했던 삶을 되살렸다. 《진화론과 다윈》(레베카 스테포프, 이한음)은 일찍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며 진화론의 탄생을 예고했던 다윈의 삶과 진화

론의 험난한 여정을 고찰했다. 《라듐의 발견과 마리 퀴리》(나오미 파사초프, 강윤재)는 마리 퀴리가 수천번의 실험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물질 라듐을 발견한 과정과 방사선에 노출돼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방사선 치료에 몰두한 그녀의 투혼을 추적한다. 《만유인력과 뉴턴》(게일 E. 크리스티안슨, 정소영)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위대한 과학적 발견과 평범하지 않은 삶을 보여준다. 《위대한 발명과 에디슨》(진 아데



제레미 번스타인 외 지음 | 이상현 외 옮김
바다출판사/A5/208면 내외/7500원 내외

어, 장석봉)에는 세상에 빛을 선물하며 전기시대를 연 토머스 엘바 에디슨의 발명품들과 그 발명품이 탄생하기까지의 고단한 여정이 담겨 있다.

이 시리즈는 개인의 행복보다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 미래를 개척한 과학자들의 강한 집념에 초점을 맞췄다. 드라마틱한 이야기 구조 속에 녹아든 그들의 고민과 갈등, 과학자로서 겪어야 하는 정신적·육체적 고통, 세상의 편견과 질투 등이 판에 박힌 전기 양식에서 벗어나, 진솔한 한 인간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박옥순 기자

논픽션 다큐멘터리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국 BBC에서 2001년 기획·출간한 과학 다큐멘터리 〈사이언스 어드벤처—우주〉 시리즈(전 3권)가 다림에서 번역돼 나왔다. 이 시리즈는 영국 대중천문학협회 회장인 이언 니콜슨, 과학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폴 파슨즈를 비롯한 권위있는 집필진들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우주의 탄생과 진화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전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다.

이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에 나올 만한 우주 천체물리학

의 개괄적인 이론과 원리를 사실과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과학분야의 지나친 전문성과 흥미 본위에서 벗어나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하나하나의 존재를 자세하고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별》(이언 니콜슨), 《빅뱅》(폴 파슨즈), 《행성 유성 소행성》(존 맨, 이상이충호)을 차례대로 읽고 연결하면 우주 전체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각 권마다 총 4장으로 분류해 우주의 일생을 면밀히 살폈다. 《별》에서는 별의 탄생부터 진화까지 별의 일생을 설명한다. 별의 종류와 별자

우주의 탄생과 진화의 비밀 추적한 다큐멘터리

〈사이언스 어드벤처—우주〉 시리즈(1~3권) 나와



이언 니콜슨 외 지음 | 이충호 옮김
다림/B5변형/각 96면/각 9000원

리를 알아보고 고대문명과 현대문명의 천체관 변천사, 별의 성질과 거리에 따른 밝기, 온도 및 화학적 조성, 폭발하는 별과 그 잔해 등을 정리했다. 《빅뱅》은 우주의 근원적인 탄생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해왔는지 상세하게 알려준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서 우주의 신비를 풀어낸 빅뱅 이론까지 최신 과학이 밝혀낸 새로운 사실과 정보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빅뱅 이론의 성공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행성 유성 소행성》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운석과 유성, 소행성을 포함한 다양한 천체들의 존재를 설명한다. 특히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별들의 비밀을 물리학적 증거와 이론을 통해 자세히 살핀다. 또 소행성이나 혜성과의 충돌은 이제 모든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도 일깨워준다.

고해상도 컬러 사진과 컴퓨터 그래픽, 쉽고 압축적인 설명은 이 시리즈의 품격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강성민기자

한 저널리스트가 들려주는 민족과 개인의 비극

《사슬이 풀린 뒤》 《진짜 무궁화—해방경성의 풍자와 기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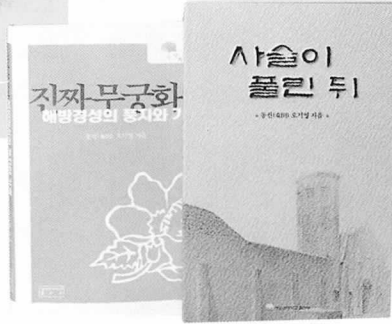
1948년 성각사에서 발간된 동전 오기영의 수기 《사슬이 풀린 뒤》와 수필집 《삼면불》이 54년의 세월을 지나 다시 세상에 선보였다. 《삼면불》은 유족과 협의해 《진짜 무궁화—해방 경성의 풍자와 기개》로 개고했고, 1931년 《동광》 1월호와 9월호에 각각 발표됐던 〈매음제도론〉과 〈평양폭동회고〉 두편을 추가했다.

오기영은 1928년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다 동우회 사건에 연루돼 퇴사했다. 해방 후 경성전기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각종 신문과 잡지에 글을 기고하다 1949년경에는 고향인 북으로 돌아갔다. 그의 개인사에는 한국 근현대사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네 차례나 영어의 신세가 됐고 가족친지도 비명횡사했다. 그는 저널리스트적인 감각으로 살아온 삶의 내력과 시대를 박진감 넘치는 문체로 기록한다.

《사슬이 풀린 뒤》는 일제 강점기에 ‘철창 속에 갇힌 새’ 처럼 절망적인 세월 속에서 난간신고를 겪으며 살아와야 했던 한 지식인의 역정이

담긴 수기다. 3·1 운동 때 어린 나이에 만세를 부르다 감옥에 갇혀 불기를 맞던 일, 친형이 옥중에서 병에 걸려 들것에 실려와 목숨을 잃은 일, 임신중독증으로 아내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일 등을 증언한다. ‘사는 것이 죽음보다 괴롭다’고 생각했던 그의 생애는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삶과 겹쳐진다.

《사슬이 풀린 뒤》가 개인사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다면, 《진짜 무궁화—해방 경성의 풍자와 기개》는 저널리스트로서 오기영의 개성과



오기영 지음
성균관대출판부/A5변형/212면/9500원
성균관대출판부/A5변형/214면/12,000원

안목이 잘 드러난 에세이다. 거지를 일소하겠다는 정부의 시책에 한편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간과한 조치를 질타하는 〈거지 추방〉에는 사회의 부조리를 임기응변식으로 처방하려는 데 대한 지식인의 분노가 서려 있다. 〈경찰과 수사학〉이란 글에는 그의 저널리스트적 감각이 빛난다. 그는 요즘 언론에도 심심치 않게 쓰이는 ‘전가의 보도’라는 말이 일본 사무라이 전통에서 나온 말이고, 조선에는 없는 말이라고 꼬집고 있다. 그의 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부분이 많은데, 이는 그의 식견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때보다 그리 멀리 나아가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천홍기자

‘발명’이라는 키워드로 과학사의 중요한 사실들을 쉽게 알려주는 〈발명가와 과학자〉 시리즈가 지호출판사에서 전5권으로 출간됐다. 이 시리즈는 무기, 유전자, 통신, 질병, 비행의

다섯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명과 발견을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용 과학도서가 한 인물에 대한 전기나 흥미 위주의 토픽 중심으로 채워져온 반면, 이 책은 각 분야의 혁

신적인 사건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서술함으로써 개별 분야의 역사를 한눈에 훑어볼 수 있게 했다. 또한 과학분야 출판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무기와 질병 같은 주제도 포함하고 있어 새롭다.

《파괴를 위한 과학, 무기》(제이슨 리치, 전대호)에서는 잠수함부터 미국의 서부개척 시대에 필수품이었던 권총, 참호전투 시대를 연 자동기관총, 바다의 공포 어뢰 그리고 현대판 ‘불화살’ 핵탄두 미사일까지 살펴본다. 《생명의 암호를 풀다, 유전자》(네이션 아생, 이한음)는 다윈의 진화론과 멘델의 유전법칙, 염색체가 유전정보를 운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토머스 모건 등을, 《더 멀리 더 가까이, 통신》(토마스 슈트라이스구트, 이민아)은 지구촌 사람들을 책, 전화, TV, 인터넷으로 묶어준 발명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세균과의 전쟁, 질병》(로버트 멀케

호기심과 열망으로 이어진 놀라운 발명의 연대기

〈발명가와 과학자〉 시리즈 출간대



제이슨 리치 외 지음 | 전대호 외 옮김
지호/A5변형/168면 내외/각 8900원

히, 강운재)은 피부에 작은 상처만 생겨도 파고 들어오는 세균과 질병에 대항한 과학자들의 노력과 결실에 관한 이야기다. 작은 미생물에 의해 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증

명한 루이 파스퇴르, 인류의 평균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놓은 플레밍의 페니실린 항생제 발견 등 불멸의 순간들이 펼쳐진다. 몽골피에 형제의 열기구, 증기기관을 이용해 비행선을 제작한 앙리 지파르 등 목숨을 내걸고 비상의 꿈을 실현해온 발명가들의 연대기인 《목숨을 건 도전, 비행》(돈 벌리너, 장석봉)은 자유로운 우주 여행을 향한 인류의 또 다른 열망을 부추긴다.

각 장마다 ‘발명의 실마리’와 ‘발명 뒷이야기’로 나뉘어 서술함으로써 발명 자체보다는 그 원인과 배경을 확실히 짚어준 점은 이 시리즈의 돋보이는 부분이다. 발명 연표와 용어해설,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삽입된 풍부한 사진자료가 이해를 돕고, 큼직큼직한 글씨도 가독성을 높였다. —강성민기자